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33호



이상형에 대한 딜레마

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젊은이가 고민에 빠져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난 정말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자네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아내가 필요하다고. 너무나도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얻지 못했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집에 데려가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걸.” 그래서 친구가 말했어요. “아, 그럼 문제는 간단하네! 어머니랑 비슷한 여자를 구해 봐.” 그러자 남자가 대꾸했지요. “물론 그것도 해봤지. 그랬더니 이번엔 아버지가 싫어하셔!” 🌿

뭐 이런 변호사가 다 있담!

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변호사가 거리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즉각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그는 명함을 돌리며 말했지요. “자, 어느 쪽이든 말겠습니다. 난 다 봤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니면 양쪽 다 변호를 맡아 주지요.” 🌿



부업

청하이 무상사/ 19995. 12. 17.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 No. 516



은행 입구 쪽에서 일하는 한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람들이 들어와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이 남자는 큼지막한 시계를 사서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시계, 맞나요?” 🌿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즐기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33/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33/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33/jk1.htm> (미국)

앞표지 안/ 스승님의 농담

이상형에 대한 딜레마/ 뭐 이런 변호사가 다 있담!/ 부업

2 스승님 말씀

‘수행의 비결’ 스승에 대한 완전한 믿음

3 감로법어

생명을 구하는 최고의 방법

4 다채로운 이벤트

브라질/ 호주/ 포모사/ 미국

8 수행 상담소

단체명상의 이로움/ 단체명상의 중요성

9 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10 신기한 감응

비구니의 꿈을 들어주신 스승님/ 난관을 극복하고 수행에 정진하자

13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세상의 환상을 간파하라

14 인터넷 속 짝은 이야기

지금 누가 우리의 ‘낙하산’을 준비하고 있는가

15 과학과 영성

신비의 송과체(松果體)

16/ 35/ 뒤표지/ 영혼의 고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비디오 테이프/ MP3 CD/ 최신 출판물

17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행복의근원/ 최고의 눈

18 골라 뽑은 수행문답

무형의 지혜의 원천/ 가장 신비스런 차크라 - 지혜안/ 제 3의 눈을 계발하는 방법

20 깨달음에서

사랑의 스무 방울

21 이야기 세상

신의 완벽한 안배/ 기도의 응답, 바나나 꽃 이야기

23 전세계 채식식당

맛의 고향- 산호세 채식식당

25 채식시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채식/ 사랑과 채식

27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최고의 지휘관

28 깨달은 스승의 생활경

적극적인 삶을 살라

30 예술과 영성

세계적인 독일 영화감독 헬무트 니스케씨의 인터뷰

33 수행일화

지상에 천국을 창조하기/ 나만의 특별한 공간

36 사랑의 실천

스리랑카 콜롬보/ 미국 오하이오/ 포모사 타오웬/
2002년 1월부터 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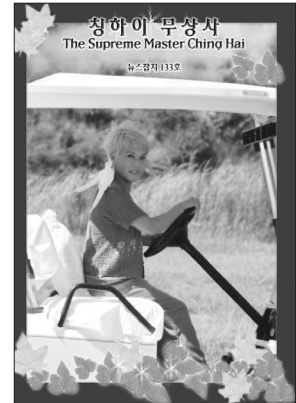
40 감사의 편지

43 관음 웹사이트

44 전 세계 연락처

뒤표지 안/ 센터 이벤트

시후 도장 죽림(竹林) 및 무지개 정원 미화활동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애고
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
러므로 그와 가까이 있으면 매우 편
안하고 어떤 압박도 느끼지 않습니다.
~ 청하이 무상사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33호

출판일자 : 2002. 10. 26.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7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
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
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행의 비결’

스승에 대한 완전한 믿음

청하이 무상사/ 1988. 8. 12-18. 포모사 이란 선철 (원문 중국어)

MP3-1

내 수행의 비결은,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나는 매우 순진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 자신을 불보살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나의 스승이 살아 계실 때에는 그에게 완전히 맡겼고, 스승이 떠나신 뒤에는 누구든 나의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승께서 언제나 나를 돌보시리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어디를 가든 스승이 날 돌보고, 어느 누구도 날 해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난 모든 사람들을 신뢰했지요.

나는 그 누구든 나의 스승과 똑같이 대합니다. 그들을 한 인격으로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스승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내면에 존재한 불성을 명확히 볼 수 있고, 신의 빛이 도처에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최고의 스승이 화현한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스레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내가 있으니 까요! 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일심불란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날 믿을 수 없다면 그 연결을 단칼에 자르고 다른 스승을 믿으십시오. 일심불란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 후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편이 낫습니다. 두 척의 배에 한 다리씩 걸치지 마십시오. 바로 바다에 빠질 테니 까요.

나는 내 수행의 비결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비결이 없으니 까요. 유일한 비결이라면, 너무 천진했다는 것일 겁니다! 신은 천진한 사람을 돌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기처럼 무력해서 누구든 돌봐 주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무방비하게 노출된 아기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부모가 아니어도 얼른 가서 안아 줍니다.

아이가 울면 도닥거리고, 아이가 배고픈 것 같으면 얼른 먹을 것을 줍니다. 아기는 너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두들 돌봐 주려 하지요.

아마 내 수행의 비결은 ‘너무 천진했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까지 천진하면 불보살이 돌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의 곁에 있게 되지요. 왜냐하면 신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천진해서 혹시라도 신이 떠나면 우리는 바로 죽을 테니 까요. 아기는 아주 작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돌봐 줘야 합니다. 아이의 곁에 있으면서 24시간 내내 보호해 줘야 하지요. 만약 우리가 아기처럼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신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 어떤 일든 그 ‘어른’이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법을 전할 때 나는 불보살의 힘에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범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보살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더 안전합니다. 범부는 실수할 수 있지만, 불보살은 결코 그런 법이 없으니 까요. 그래서 “현자는 우민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민할 수 있다면, 신은 우리를 돌봐 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는 불보살이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우리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승께 배우기 시작했을 때, 동수들에게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 다.

‘나의 스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스승께서 돌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신구의와 나의 삶,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스승의 손에 맡겼 습니다. 그래서 아기처럼 아주 안전하게 느껴졌 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지요! 아마 이것이 나의 비결일 겁니다. 당시 나는 어떠한 의무감도 없이 그저 안전함을 느꼈습니 다. 그래서 매우 여유 있고 아무런 슬

품도 느끼지 않았으며,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스승께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지만 이제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자였을 때는 모든 것을 스승의 안배에 맡겼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스승이 날 돌보시리

라는 걸 마음속 깊이 느꼈기 때문에 아무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스승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최고의 신, 최고의 부처를 믿으십시오. 그들은 우리 모든 중생들의 행동을 볼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승님은 뉴스잡지 54호 ‘스포트라이트’ 에서도 ‘스승님의 득도 비결’ 을 밝히셨다. 그 글 또한 모든 구도자들에게 값진 가르침이 될 것이다.

관련 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54/d.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54/d.htm> (미국)



감로법어

생명을 구하는 최고의 방법

칭하이 무상사/ 1991. 6. 30.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우리 명상법은 최고의 치유방법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질병과 업장의 병, 육체적 질병까지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명상할 때 모든 것이 치유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본래의 자아로 돌아가 왕 선생, 류 부인 등 세속의 신분을 잊고 본래면목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 자아는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더럽혀지거나 깨뜨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생불사의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육신 역시 불생불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만큼 명상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의 인연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소식

움직이는 홍법단

[상파울로] 최근 상파울로 센터 동수들에게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새로운 홍법차량을 추가 구입한 것이다! 열성적인 동수들은 즉시 운전 팀을 조직하고 대중에게 진리를 전하는 신성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기뻐했다.

최근 동수들은 이 차량으로 상파울로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그리고 도시 외곽을 순회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센터에는 관음법문에 관한 수많은 문의전화가 걸려 왔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알고자 찾아왔다. 이에 많은 동수들이 자청해 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하며 구도자들의 요구에 도움을 주었다.

동수들은 차 안에 계속해서 스승님의 창작곡인 'I will forever love you'를 틀고 다니며 지역의 자장을 정화시키고 지역민들의 영혼을 고양시켰다. 신께 봉사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과 스승님의 사랑 어린 은총에 감사드린다. 🌿



호주 소식

호주 국경일 기념 휴식 선삼

[골번] 스승님의 축복으로 시드니와 캔버라(호주의 수도) 동수들은 선을 개최할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 센터는 40헥타르 규모로 골번에 위치해 있다. 골번은 시드니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큰 도시로 시드니와 캔버라, 멜버른 동수들에게도 교통이 편리하다.

2002년 호주의 날 퍼스, 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등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동수들이 골번 선삼에 참여했다. 이 선 행사는 청소년 동수들에게도 개방되었는데, 센터에서는 그들을 위해 컴퓨터 게임, 야외활동, 명상, 센터 둘러보기, 건강에 유익한 음식과 음료 제공 등 일련의 행사를 준비했다. 성인 동수들은 함께 명상하고 스승님의 교리에 대해 토론하고 차를 마시며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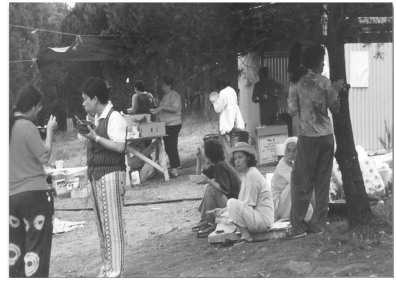
새 센터에 선을 위한 임시 화장실을 짓다.



방이 네 개 있는 이 목조건물은 임시 명상 홀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월을 감상했다. 이 외에도 주변 환경 정리, 나무 심을 장소 정하기 등 몇 가지 작업을 함께 하며 이 새로운 센터를 국제선 장소로 만들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웠다.

선 행사를 마친 후 동수들은 초기 건설의 성과에 흡족해하며 이곳을 앞으로 동수들이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고 건의하고, 필요한 설비 구입에 대해 의논했다. 선을 마친 후 동수들은 다음 3월 말 부활절 휴일에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새 센터를 떠났다. 🌿



동수들이 손수 지은 주방에서 사랑으로 마련한 음식을 즐긴다.

포모사 소식

새로운 단체명상 장소

[까오슝] 2002년 3월 27일, 까오슝 센터 동수들은 새로운 단체명상 장소인 까오슝 원산 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단체명상을 가졌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덕분에 우리는 까오슝 도회구 속에서 조용한 명상장소를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교통이 편리해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까오슝 동수들이 단체명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저녁 명상하는 동안 스승님의 성스러운 사랑이 그곳에 온통 물결치고 있었다! 이후 장주들과 포모사 각지 연락인들도 와서 함께 명상하며 축복해주었다.

단체명상이 끝난 후, 동수들의 마음은 축복과 감사로 가득해졌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선적으로 돌보시는 스승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동수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모든 동수들과 함께 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주: 2002년 4월 12일부터는 까오슝 센터의 새로운 단체명상 장소가 까오슝 노동국 노동문예센터 전시실로 바뀐다.

대만 국립대학(NTU)의 '진달래 계절 축제' 참가

[타이베이] 2002년 3월 9일과 10일, 대만 국립대학은 '2002 NTU 진달래 축제'를 개최했다. 대만대 동수들로 구성된 '광음회(光音會)'도 '생각의 힘'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준비해 행사에 참여하며, 방문객들이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 자신의 일상과 영성을 고양시키길 희망했다.

또 동수들은 이날, NTU에서 3월 12일에 대만 사범대에서 3월 19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NTU 생화학 대학원 루 평조우 교수의 '좋은 물

은 말할 수 있다' 강연 세미나를 중점적으로 선전했다. '물은 영혼의 거울이다', '인간의 생각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물의 수정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에 많은 방문객들이 큰 관심



을 보였으며, 일부 사람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세미나에 참여해 이 현상을 탐구해 보겠다고 얘기했다. 동수들은 또한 부스에 ‘좋은 물 공급처’를 설치하고 ‘사랑’과 ‘감사’ 등 긍정적인 말을 붙인 축복 받은 물을 나눠 주었다.

이번 진달래 축제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화사한 봄꽃들로 어우러져 NTU에 멋진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방문객들은 동수들이 제공한 달콤한 ‘좋은 물’을 맛보면서 이곳에서 퍼져 나오는 무한한 사랑을 즐겼다. 🌱



‘좋은 물은 말할 수 있다’ 세미나

[타이베이] 포모사 북부지역 대학 동수들은 NTU 진달래 축제에 참여한 후, ‘좋은 물은 말할 수 있다’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하고 방법법도 가르쳐 주었다.

NTU에서 열린 첫 번째 세미나는 만원을 이뤘다. 우선 루 평조우 교수가 인간이 좋은 생각과 이념을 품을 때 눈꽃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얼음 결정이 형성된다는 과학 연구를 소개했다. 이어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스승님의 비디오 테이프가 상영되었다. 참가자들은 주의깊게 시청하며 유머와 지혜로 넘치는 스승님의 강연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다음으로 상영된 ‘사랑의 길을 걷자’ 비디오를 통해 더 큰 감동을 받고 스승님의 사랑에 흠뻑 잠겼다.

이날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방법법을 신청했으며, 일부는 채식을 하고 매일 명상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수들에게 수행에 관해 질문하는 등 세미나장은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동수들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도와주신 스승님의 은총에 감사드렸다.

3월 19일, 대만 사범대에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루 교수는 명쾌하고 생동감 있는 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청중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또 루 교수는 마사루 에모토 박사가 일본과 세계 각지의 물분자 구조를 연구한 슬라이드를 상영했다. 이 슬라이드는 ‘고맙습니다’, ‘감사’ 등의 긍정적인 말과 음악 및 종교 지도자의 기도, 성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이 아름다운 얼음 결정을 형성하는 반면 부정적인 말, 헤비메탈 음악, 부정적인 사상과 행동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사진이나 이름은 육각형의 아름다운 얼음 결정을 파괴하거나 뒤틀리고 탁한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995년 대지진을 겪은 고베에서 채집한 물 샘플이 수정구조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물조차 희생자들의 공포와 무력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3개월 후 세계가 고베 희생자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자, 물 분자구조는 마치 자신감을 회복한 듯 매우 아름답게 변했다.

루 교수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했다. 순수한 물 분자는 보통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물은 수소와의 결합을 통해 ‘공명자장 구조 (micro-cluster)’를 형성한다. 순수한 물일수록 공명자장 구조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 공명자장 구조를 갖춘 물분자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여 몸의 각 부분으로 깊이 침투하고 세포 속에도 잘 흡수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물(공명자장수)은 생물학, 의학, 농업에 응용되어 기능수(機能水)라고 지칭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물이기도 하다. 이런 물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육체기관에 깊이 침투해 온몸을 활성화시킨다.

루 교수의 말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참석자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대중들과 나누었다. 이를테면, 한 여성은 새로 이사 간 집에서 시든 덩굴식물을 발견하곤 불쌍하게 여겨 매일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좋은 물을 줄테니, 살아나길 바래.” 그러자 마침내 그 덩굴식물은 살아났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친구의를 항상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사랑의 자장을 발산해 중생과 나라와 온 우주를 이롭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이제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연구를 통해 생각의 힘이 과학적으로 실증되었다. 마사루 박사의 이 발견을 대중에게 알려준 루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주: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연구에 대해서는 131호 뉴스잡지를 참고하십시오.
위 활동들은 ‘예술과 영성’ 48편에 담겨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http://137.hichannel.com.tw> (중국어)


미국 소식

‘금육일’ 채식축제

[미시간] 2002년 3월 8일, 미시간 센터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금육일-채식축제’에 참여했다. 동수들은 사랑으로 마련한 순수 채식 음식을 제공하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는가 하면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는 견본책자를 나눠 주었다.

법률계에 종사하는 한 여성은 1년 전 친구의 집에서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고 나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알고 싶어했다. 전시회 부스의 공간적 제한 때문에 우리는 관음법문과 스승님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부스 밑 부분에 부착해야 했는데, 그

럼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포스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주위 군중들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세히 내용을 읽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접하고 또한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자,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단체명상의 이로움

청하이 무상사/ 1998. 1. 17. 미국 LA 국제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41

질문 : 이번 주에 막 입문해서 아직 단체명상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상이 신과 우리 개인 간의 일이라면, 단체명상의 이로움이나 가치는 무엇입니까?

스승님 : (단체명상에서 나오는) 동일한 에너지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집에서 혼자 명상할 때는 빈둥대며 몸이 원하는 대로 어슬렁거리거나 눕게 되지만, 단체명상에서는 모두가 앉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눕지 못합니다. 그런 도움을 줍니다. 또 가끔 나태해져 명상

하기 싫어질 때, 함께 하면 힘이 생깁니다. 축구나 다른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자기 자신의 일이므로 스스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체로 여러 사람이 함께 훈련하면 보다 효과적이지요.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로서 주위 환경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지요. 그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신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신을 찾으려 명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 놀이의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 할 뿐입니다. 

단체명상의 중요성

청하이 무상사/ 1999. 9. 2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70

질문 : 스승님, 단체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단체명상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단체명상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각자 집에서 명상합니다.

스승님 : 단체명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명상하면 보다 힘이 강해집니다. 우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단체명상으로 응집된 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제학과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마치 은행이 돌아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모두가 한 은행에 예금을 하면 각자 부자가 됩니다. 한 사람마다 10원, 100원, 천원, 만 원 등을 한 은행에 넣으면, 그 은행은 부자가 되고 고객들도 은행의 수익을 이자로 돌려 받게 됩니

다. 그러나 돈을 각자 지니고만 있으면 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은행에 예치를 한다면, 은행은 더 부자가 되고 예금주들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도 세상의 이치와 같습니다. 매우 논리적이지요. 혼자서는 아마 이 의자나 단상을 들 수 없겠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이치지요.

질문 : 저는 하루종일 근무하며, 목사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이나 병원도 방문해야 하지요. (스승님 : 예, 당신의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체명상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체명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에게 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스승님: 최선을 다해 명상하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단체명상에 참석하세요. 매주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참석하세요. 단체명상 시간이 누구에게나 편리하진 않습니다. 토요일에 단체명상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토요일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토요일만 되면 부모님이 찾아오신다거나

하는 식이지요. 물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 얻어내려고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만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센터에 오려고 노력했으니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 이 점을 알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천천히 진보할지도 모르지요. 그뿐이에요. 조금 천천히 가는 것뿐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2001년 5월 6일부터 포모사 ETTV(채널 32)에서 방영되기 시작한 칭하이 무상사의 '영성과 예술' TV 프로그램이 동수들과 일반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02년 5월 5일을 기점으로 방송 일정이 일부 변경되면서 다음 시간대가 증설되었다.

새로운 방송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일요일 아침 11:00 - 11:30

토요일 아침 05:30 - 06:00 (재방송)

북미와 동남아를 비롯한 ETTV 위성방송 지역들은 시차에 따라 방송된다.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TV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방송시간표 관련 웹사이트

<http://www.spiritual-discovery.org/events/tv.htm>

TV 방송용 '예술과 영성' 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E-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비구니의 꿈을 들어주신 스승님

중국 본토 동수

우리가 스승님을 따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생 최대의 영광이자 복이다. 모든 관음법문 수행자들도 이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리라 믿는다. 최근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스승님의 무한한 힘의 절묘한 안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음력 설 전, 산에 살고 있는 한 동수가 설을 함께 지내자고 초대했다. 그때도 사양을 했던 내가 설달 그믐에는 왠지 연락도 안 하고 산을 찾아갔다. 왜 내가 거기에 왔는지 계속 궁금했지만 어쨌든 이왕 왔으니 만족하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일주일 동안 명상하면서 지내며 스승님의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한껏 고양되었다. 고요히 명상하는 생활 속에서 어떤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것이란 짐새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사형이 갑자기 근처에 있는 큰절에 가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그 절을 찾아갔다. 그러나 설이라서 외부에 개방되지 않은 채 대문도 잠겨 있었다. 한참을 두드리자 마침내 한 젊은 비구니가 문을 열어 줬고, 그녀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곤 가 버렸다. 절 앞마당에 들어서자 큰 소나무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고, 고요함이 한가득 퍼진 듯한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우린 돌계단을 찾아 명상하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은 그때 가피력이 어찌나 강한지 눈을 감자마자 뜨고 싶지 않아졌다.

명상을 끝낸 후 우리는 안마당을 나오다가 주방을 발견했다. 채식 요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구경하고 있는데, 마침 절에 참배하러 왔다가 주방에서 일을 돕고 있던 한 보살이 인사를 하며 무슨 수행을 하는지 물었

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었던 그 비구니도 음식을 마련하면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었다. 우리가 달마대사가 수행했던 ‘선’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그 비구니는 깜짝 놀라며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합장하며 자신이 수년 동안 그 ‘무자진경(無子眞經)’을 찾고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때 다른 비구니들이 주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대화가 끊겼다. 나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으면, 대웅전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곤 다시 대웅전 앞마당으로 가서 명상했다. 비구니는 주방 일을 마치고 바로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는 그녀에게 스승님의 사진을 주었지만, 혹시 절의 규칙을 깨는 게 아닐까 싶어 스승님의 법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승님께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가 정말 스승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내면의 스승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사람들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그녀를 계속 불렀지만, 그녀는 구도심에 불타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불려 나갔다. 우리는 그녀의 장애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는 대웅전으로 들어가 명상하면서 스승님께 도움을 청했다. 얼마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와 그 ‘말 없는 참된 경’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우리가 스승님의 허락 없이는 전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녀는 스승님의 연락처를 간절히 요청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구도 여정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녀는 그 절에 온 지 3년째 되었는데, 해마다





진정한 스승께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불보살께 기도했다. 이전에 도교의 스승으로부터 명상을 배워 유체이탈을 경험했었지만,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자 그 두려움에 수행을 그만두었다. 이 절에 온 첫째, 한 행사를 마치고 꽤를 뽑았는데, ‘절에 머물면서 법을 기다리라’는 꽤가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출가한 것이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추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탈을 구하고 삼계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그 절에는 해탈법문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녀는 기적을 위해 일 년을 힘겹게 버텼다.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두 번째 해에 같은 형식으로 점괘를 뽑자 놀랍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감히 그 절을 떠날 생각을 못 하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갈망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가도 역시 아무런 결과도 없었고, 그녀는 자신이 찾는 스승과 법문을 언제쯤이나 만날 수 있을지 불보살께 계속해서 구했다. 올해로 세 번째 해가 되어 접어든 점괘에는 ‘마음을 닦으라’고 되어 있었다. 놀란 그녀는 자신이 최고의 법문을 얻을 인연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열쇠를 주어 그녀가 기쁜 마음으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열쇠가 사라져 버리곤 날이 밝았다. 나중에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었을 때, 그녀는 우리 머리 위에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꿈이 현실로 나타났음을 감지했다.

그녀의 신실함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다. ‘달마사행관’과 ‘달마혈맥론’ 등 그녀도 익히 알고 있는 경전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와 더불어 스승님의 교리도 들려주었다.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내내 합창한 채 들으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절의 열쇠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 외진 곳에 있는 관음전에 들어가 방편법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처음 절에 들어섰을 때 가피력이 것처럼 강력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스승님이 우리보다 앞서 도착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피하셨던 까닭이었다!

관음전에서 30분을 명상한 후 미소를 머금고 있던 비구니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처럼 평온하게 느끼기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또한 굉장히 밝은 빛이 끝도 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즉시 우리에게 절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 대신 시방삼세불께 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그녀는 불보살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더러운 마룻바닥에 신실하게 세 번 절을 올렸다. 또 눈물을 글썽이며 이 귀중한 법문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맹세했다. 우리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스승님의 책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방편법일 뿐 더 완전하고 높은 법문이 있으니, 방편법의 결과가 좋으면 수행해 보라고 권해 주었다.

우리가 절을 나서자 그녀는 공손하게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한 친구를 재회한 듯한 기분이 들어 작별을 고하기가 아쉬웠다. 우리가 한참을 걸어 나온 뒤에도 그녀는 합창한 채 내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왜 산에 갔는지, 그 사형이 갑자기 왜 절에 가고 싶어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스승님의 힘은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모든 신실한 사람과 목마른 영혼을 돌보신다! 스승님 덕분에 우리는 애고 없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은 스승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힘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아이들을 인도하신다. 





난관을 극복하고 수행에 정진하자

포모사 타이쵸 추오 사형 구술 / 포모사 타이쵸 뉴스그룹 기록

추오 사형은 수행도 열심히 하면서 센터 활동에도 적극적인 오래된 동수다. 센터에 호법이나 주방 일이 생기면 어디서든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최근 뉴스잡지를 읽다가 ‘신기한 감응’을 보곤 예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또 마침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1997년 방콕 국제선사 주의사항’을 발견하곤 자신의 체험을 대중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7년 10월, 추오 사형은 태국에서 국제선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등록을 하고 항공권도 구입했다. 그러나 출발 일주일 전, 갑자기 위궤양이 생겨 몸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또 아랫배도 탈이 나서 병원에 이틀 간 입원해야 했다. 사형은 선 행사 참가를 포기하려고 생각했다가 등록 텀으로부터 항공권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을 돌려 선 행사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태국에 도착하고서도 계속 몸이 불편했지만, 공항을 빠져나와 마중을 나온 동수들의 손에 들린 잡지의 스승님 사진을 보자 바로 편안해졌다. 그 즉시 그는 스승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고통이 많

이 줄어들었다.

선 행사 전날 밤, 추오 사형은 호법 팀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66세의 고령이어서 호법 연령을 넘어섰지만, 당시 남자 호법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 3시 반쯤 아침 호법을 서기 위해 잠에서 깨었을 때, 다시 한 번 스승님의 축복이 전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선 기간에 연속해서 4일 동안 매일 7, 8시간 호법을 썼다. 스승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결코 추오 사형처럼 아픈 노인이 4일 연속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호법을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무척 감동하여 이 진귀한 체험을 동수들과 함께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했다.

“우리는 선 행사에 참가하고, 또한 스승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수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굳은 신념을 갖고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힘을 믿는다면, 생각만 해도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그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



세상의 환상을 간파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1. 7. 21.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중국어) 비디오 테이프 No. 183

인도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요. 어떤 깨달은 스승이 제자에게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의 아내와 가족, 형제들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그들을 버릴 수 없다고 했지요. 또 그가 출가하면 가족들이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너의 가족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주마.”

그들은 함께 제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알약을 하나 주고, 자신은 낯선 사람처럼 가장해서 집 밖에 숨었습니다. 알약을 삼킨 제자는 바로 죽은 사람처럼 호흡과 심장이 멈추었고 몸이 뻗뻗하고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자의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불 보살께 그를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스승이 집안에 들어와 “난 당신들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뿔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곤 어서 그를 살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살리려면 내가 그를 대신해 죽어야 하는데, 난 그와 아무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는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이 그를 이토록 사랑하니, 분명히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난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데, 어찌 내가 그를 대신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 그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의 영혼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순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교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자 대신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다들 좋은 핑계들이 있었지요.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집을 돌보겠소?”, “내가 죽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식이었습다. 그의 아내 또한 그를 매우 사랑해서 그가 죽은 것을 보곤 통곡하며 바닥을 뒹굴었지만,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이 두 아이는 누가 길러

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친척들은 말했습니다. “참!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 이왕 죽은 사람인데, 그냥 화장하고 끝냅시다!” 그 말을 듣자 제자는 별떡 일어났습니다. “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곤 가족을 떠나 스승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모두 불완전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보통 자신을 잊을 수 있을 만큼, 혹은 그 사람 대신 죽을 정도는 아니지요. 어떤 일들은 이처럼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그 진실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것만 볼 뿐 정확한 이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해 집착하건, 그건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집착해도 얼마 있으면 떠나야 하니까요. 그러니 떠날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와서 또다시 집착하고 서로를 얽어매고 하다가 잠시 후엔 다시 또 떠나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 친척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하겠지요. 그러니 다시 돌아와 사람들을 번거롭게 만들지 말고 깨끗하게 한번에 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효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중: 예)



부부지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요. 갈 때는 서로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우므로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단단히 해서 깨끗하게

떠나고 이 고통스런 장면을 다시 연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고통스럽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넷 속 작은 이야기

지금 누가 우리의 ‘낙하산’을 준비하고 있는가


찰스 척 플럼은 베트남전에서 미 해군 제트기를 조종했다. 75번의 전투 임무 후, 조종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자 플럼은 낙하산으로 긴급 탈출했으나 결국 적군 진영에 떨어졌다. 그는 베트남에 붙잡혀 교도소에서 6개월 간 갇혀 있었다. 고난을 뚫고 극적으로 탈출해 지금은 그때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강연하고 있다.

어느 날 플럼 부부가 식당에 앉아 있었을 때, 다른 식탁에 있던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당신, 플럼 씨 아닌가요? 월남전에서 항공모함 키티호크 호의 제트 전투기를 조종했잖아요. 그때 격추당했었죠!”

“도대체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지요?” “내가 당신의 낙하산을 꾸렸거든요.” 플럼은 남자의 대답에 숨이 멎을 만큼 놀랐지만, 바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 남자는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난 그 낙하산이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플럼은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정말 그랬어요. 낙하산이 퍼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플럼은 그날 밤 그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플럼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때, 하얀 모자에 네모난 세일러 갓, 나팔바지의 제복을 입고 있었을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계속해서 떠올

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몇 번이나 보면서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요?” 같은 인사도 하지 않았을 것을 생각했지요. 알다시피 나는 전투기 조종사였고, 그는 ‘그냥’ 수병이었으니까요.” 플럼은 많은 시간을 선내의 긴 나무 탁자에 앉아 모르는 사람의 운명을 손에 쥐고 꼼꼼하게 낙하산의 연결 끈을 꿰매고 하나 하나 낙하산을 꾸렸을 수병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플럼이 청중에게 묻는다. “누가 당신의 낙하산을 꾸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낙하산’은 누군가가 하루종일 일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플럼은 조종기가 적군 진영에 격추되는 순간, 많은 종류의 낙하산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물리적인 낙하산뿐 아니라 정신적인 낙하산, 감정의 낙하산, 영혼의 낙하산 등 그가 안전하게 땅에 닿을 때까지 이 모든 낙하산이 필요했었다.

우리는 매일 겪는 생활의 도전 속에서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한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말을 잊거나, 좋은 일이 생긴 사람에게 축하하는 것, 남을 칭찬하는 것, 그리고 순수하게 선의의 행동을 하는 것 등을 잊고 지낸다. 이번 주, 이번 달, 그리고 올해를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낙하산’을 꾸려 준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자. 

신비의 송과체(松果體)

포모사 뉴스그룹

‘송과체’라는 용어는 신비스런 분위기를 자아낸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생리학자, 물리학자, 자연과학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Descartes, Rene du Perron, 1596-1650)는 그것을 일러 ‘영혼의 보좌’라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것이 ‘생명기호’를 운반하고 신체에 명령을 전달하는 중추라고 여긴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송과체에 눈의 망막과 유사한 감광 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송과체 역시 ‘시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 때문에 송과체는 ‘제3의 눈’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송과체에 의해 분비되는 멜라토닌(Melatonin)의 기능이 밝혀지면서 송과체의 신비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송과체와 멜라토닌

송과체는 중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완두콩 크기의 납작한 솔방울 모양을 한 기관이다. 유년기에 최대 크기에 이르렀다가 나이가 들에 따라 석회질로 침전되어 수축한다.

송과체는 받아들이는 빛의 양에 따라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결정하는데, 빛에 대한 민감도로 인해 매일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을 조정하는 인체의 ‘시계’ 역할을 한다. 밤에 잠자는 동안, 인체는 대량의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보통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량은 최대치에 이르고 새벽 이후로는 급격히 떨어진다.

멜라토닌의 생성량 역시 연령과 관계가 깊어 보통

생후 3개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세 때 최대에 이르고, 사춘기 이후로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인체내 멜라토닌의 영향력

멜라토닌은 단순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지만, 체내 각종 분비선과 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등 신체 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감 신경의 지나친 흥분을 억제하여 혈압을 내리고 심장 박동수를 낮추는 등 심장의 충격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신체의 생물학적 시계를 조정해 시차로 인한 피로를 풀어 주고, 면역력 강화,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 저항력 증가, 암과 노인성 치매 예방 등의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은 신경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세로토닌(Serotonin)으로 전화되어 분비된다. 낮 시간에는 의식활동이 활발하고 마음이 들뜨고 분산되므로 신경세포를 공급하기 위해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 반면 밤이나 명상할 때는 의식활동이 감소하므로 이에 따라 멜라토닌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때 눈이 빛을 인식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야간 근무자와 밤에 불을 켜 놓고 자는 사람들이 병에 대한 면역력이 낮고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미국의 두 가지 연구에 의하면, 밤의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에스트로겐의 분



비를 유도해 야간 근무를 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아 돌연사병(SIDS)으로 사망한 유아들은 멜라토닌의 양이 지나치게 적고, 자유 라디칼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을 약화시켜 자유 라디칼의 손상시 뇌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성인 우울증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신병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멜라토닌 수위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멜라토닌의 출원

멜라토닌은 음식 중 귀리, 당옥수수, 쌀, 생강, 토마토, 바나나, 보리 등에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백분을 비율은 높지 않다. 이 외 에도 다시마, 콩, 호박 씨, 수박 씨, 아몬드, 땅콩, 효모, 맥아, 우유 등의 식품도 멜라토닌의 합성을 돕는다.

소식(小食) 또한 정상적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는다. 연구에 의하면, 먹이를 적게 준 늙은 쥐들은 젊은 쥐들처럼 건강한 송과체를 유지하며 멜라토닌도 정상적

으로 생성한다. 그들의 체내 멜라토닌 수위는 젊은 쥐의 80%에 달하며, 이에 반해 먹이를 제한하지 않은 늙은 쥐의 경우는 그 40%에 지나지 않았다.



결론

멜라토닌은 인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멜라토닌의 증가가 건강에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하는 여성의 경우 야간 체내 멜라토닌의 생성이 일반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전한다. 또한 엄지발가락의 운동도 간접적으로 송과체를 자극해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낮 동안의 신체 활동은 멜라토닌의 수위를 높이는 반면, 야간 활동은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송과체를 젊게 유지하려면, 많이 움직이고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

주: 자유 라디칼-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크며 수명이 짧은 성질을 가진 홀 전자단.



영혼의 고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0개국어 자막>

667 신을 위한 햇불이 되자

1999. 1. 25.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강연

<영어 + 21개국어 자막>

674 사랑과 웃음 속에 거닐자

1999. 11. 28-30. 남아공 케이프타운 국제선삼



영원한 행복의 근원

청하이 무상사/ 1995. 6. 19.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481

행복의 유일한 원천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상할 때마다 그 근원과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아주 작은 중추는 이른바 ‘두뇌’라는 곳의 내부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자면 분명 두뇌 안에 있지요. 각각의 신경과 중추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 신체 방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깨달음과 영원한 행복을 관장합니다.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작은 중추는 두뇌의 중앙쯤에 있는데, 이마 가운데와 정수리에서 머리 내부로 3분의 2쯤 내려간 지점입니다. 지혜안의 중심은 분명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중추와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때론 수초 동안만 연결되어도, 그 즉시 여러분은 특별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번쩍이는 섬광을 보고 한 동안 고양된 느낌을 가지게 되겠지요. 물론 여러분은 이 중심과 항상 연결하지 못합니다. 또 그 중심과 항상 의식적인 연결을 맺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습하십시오. 많이 연습하다 보면 스승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요. 나도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내게도 행복이 있어야 여러분 모

두를 ‘처리’ 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 행복의 에너지가 없었다면, 아마 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기만 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고나 범부의 체력으로써 준다면 곧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이 퇴보하고 잘못 비뚤어지겠지요. 그래서 많은 ‘구루’들이 어떤 시점을 전후로 나빠지고 잘못되며 타락하는 겁니다. 그들도 아마 처음에는 매우 순수하고 성스럽고 숭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행 방법이 옳지 않고, 또 이 영원한 만족의 중심(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를 최대한 베풀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는 부서지고 맙니다. 사회의 압력과 주변 환경 등 온갖 함정과 유혹에 굴복한 것이지요.

이들은 정말 가엾습니다. 그들이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더욱 그들을 가엾이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서 서지도 못하는데 달리도록 강요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나는 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명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지요. 

최고의 눈

청하이 무상사/ 1989. 10. 14.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영어)

만일 자신의 본성,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특별한 눈, 특수한 눈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이 눈은 지혜안, 불안, 천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기독교에선 ‘하나의 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눈이 하나일 때, 너희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을 한데 모아서

사시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어떤 빛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불경이나 성경, 기타 경전에서 말하는 ‘눈’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의식의 바다 안에 있는 하나의 눈을 뜻합니다. 사실 어떤 눈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 지옥까지, 지상에서 불국토까지 일체



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마치 운전을 배우려면, 이미 차

를 운전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 하듯이 말입니다. 🌿



골라 뽑은 수행문답



무형의 지혜의 원천



청하이 무상사/ 1999. 10. 30. 미국 캘리포니아 LA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65

질문 : 저는 지혜안의 지혜와 마음의 지혜, 두뇌의 목소리 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스승님: 두뇌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매일 부딪히거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이렇고 저렇고 …… 하나까 ……”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두뇌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먹지 마!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 하면서요. 마치 녹음기와 똑같지요.

그리고 마음은 지혜의 중심이 아닙니다. 감정의 중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아, 마음이 끌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스승님이 이마 가운데를 가리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한 부분을 말해야만 합니다. 물론 지혜의 중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두뇌 가운데 한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야 하지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혜를 찾을 필요가 없지만, 어딘가에서부터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심장 차크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지, 지혜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정한 마음은 여러분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



가장 신비스런 차크라 - 지혜안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8-30. 남아공 케이프타운 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73


질문 : 제3의 눈과 차크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제3의 눈은 우리의 진정한 눈입니다. “너희의 눈이 하나일 때, 너희의 온몸은 빛으로 가득하리

라”고 했는데, 바로 제3의 눈을 가리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안을 통해 물질로 화현한 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현하지 않은 진정한 신의 모습을 보려면 영적인 눈을 사용해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명상 중에 때로 그 눈, 하나의 눈을 보기도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눈과 비슷하지만 단 하나뿐이지요. 그것이 제3의 눈, 영혼의 눈, 지혜안, 혹은 천안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명칭이야 어떻든 모두 같은 것이지요.

심장 차크라라는 심장의 위치가 아니라, 심장을 둘러싼 무형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 몸 주위에 오오라가 있듯이, 이것은 심장 주위를 둘러싼 오오라이지요. 심장 차크라라는 사랑, 심지어 증오 같은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키우고 싶을 때 집중하는 곳으로서 마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지혜의 차크라, 다시 말해 제3의 눈에 집중해야 합

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차크라들이 있습니다. 발 차크라, 무릎 차크라, 생식기 차크라, 위 차크라(혹은 태양총 차크라), 심장 차크라, 목 차크라, 지혜안 차크라, 백회 차크라 등이 있지요.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해당 차크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지혜안에 집중한다면 그 외 모든 차크라들도 더불어 강해질 것입니다. 지혜안은 모든 차크라의 중심이고 우리 존재의 사령부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곳에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강화됩니다. 사랑마저 강화되고 사물의 이치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리도 더 맛있어지고, 일도 잘하게 되고, 생각도 더 분명해지고 창의력도 강화되며, 그림도 더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강화되지요. 



제3의 눈을 계발하는 방법




청하이 무상사/ 1993. 3. 28.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343

질문 : 어떻게 제3의 눈을 계발합니까?

스승님: 제3의 눈은 계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지요. 우리는 물질적이 아닌 것은 계발할 수 없습니다. 제3의 눈이란 단지 표현일 뿐, 사실 어떠한 눈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 눈으로 제한적인 시야에 들어오는 사물을 보지만 다른 눈, 제3의 눈이 있으면 온 우주의 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은 보기 위한 눈도, 듣기 위한 귀도, 인식하기 위한 어떤 감각 기관도 필요치 않습니다. 영혼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또한 어떤 육체적 기관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지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힘이며,

우리 내면의 무상사로서 모든 곳의, 모든 방식, 모든 것을 알고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무상사이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요? (스승님이 한숨을 쉬심) 그래서 난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와서 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등하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존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와 예수, 부처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스무 방울

클라우디아 리코 사저/ 멕시코 텍스코코 (원문 스페인어)


우리 회사는 최근 멕시코의 한 큰 회사로부터 전국적인 시장조사를 위탁받았다. 그래서 여러 조사팀이 전국 몇 개 도시로 파견되었는데, 나는 북멕시코의 레이노사, 살티요, 시우다 후아레스로 발령받았다. 이번 출장에서 나는 네 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의 재정 및 조원 관리를 맡게 되어 기분이 썩 내키지 않았다.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큰 회사 자금을 다루어야 하는데다 회사 대표로서 업무를 맡아 출장 근무하는 게 처음이라서 두렵기도 하고 부담감도 굉장히 컸다. 나에게서는 정말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불평하지 말고 상황을 직시하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스승님께 축복과 도움을 청했다.

출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단체명상에 참석했을 때, 내면에서 충만된 기쁨을 느꼈다. 동수들과 친한 친구들에게 1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얘기하자, 연락인은 “사저님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문자가 없는 여러 도시를 방문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요”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약간의 전단지와 견본책자를 주었다. 나는 더 가져가고 싶었지만, 가방에 여유가 없어서

가져갈 수 없었다.

출장 중에 나는 시장조사를 할 때, 견본책자와 전단지를 나눠 주러 채식 식품점을 방문할 때마다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오불을 외었다. 다행히도 채식 식품점 주인들은 흔쾌히 견본책자와 전단지를 받아 가게에 진열해 주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뉴스잡지를 꺼내 읽곤 했는데, 특히 스승님 사진을 응시할 때마다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일을 마치고 멕시코 시티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잡지 118호에 실린 벨기에의 재키 찬트레인 사형의 ‘사랑의 아홉 방울’이란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나는 거기서 힘을 얻어 뉴스잡지에 ‘사랑의 스무 방울’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출장 중 각 도시에 20권의 견본책을 두면서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과 지혜 또한 그곳에 심었기 때문이다. 인연 있는 사람이 그 책자를 읽고서 스승님의 한없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출장에서뿐 아니라 나의 삶 매순간마다 끝없는 가르침과 보살핌을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신의 완벽한 안배

탄 유잉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이 이야기는 196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내 여동생이 여름방학을 틈타 시카고에서 일하게 되자, 남편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 동창인 리양 씨에게 그녀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 인연으로 우리 두 집안간에는 정이 싹터 훗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 어울락에 있던 리양 씨의 약혼녀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포모사로 왔을 때에는 내 친정 아버지께서 주례를 서게 되었다. 나는 이때 그들 부부를 처음으로 대면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리양 씨 부부는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 살다가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부근으로 이사를 했고, 우리는 줄곧 미국 중서부에서 살다 LA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우리 두 가족은 연락을 자주 하진 못했지만, 서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냈다. LA에서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리양 씨 부부는 전화로 안부를 물어 오곤 했다. 그들 부부는 둘 다 천성적으로 조용한 성품이었으나 우리 두 집안은 파스한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994년 여름,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스승님께서는 산호세에 채식식당을 내시고 동수들과 많은 손님들을 만찬에 초대하셨다. 참석 인원이 워낙 많아서 주차장에 대형 천

막을 세우고 모두들 조용히 앉아 스승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도착하신 스승님은 모두 귀족은 듯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농담을 던지셨다. “세상에! 만찬장이 아니라 군부대 같군요!” 그 후에 스승님이 일주일 후 ‘로맨틱한’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전에 나는 산호세에 살고 있는 절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의 두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다. 그들은 자기 언니의 50번째 생일 축하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많은 친구들도 초대받을 것이다. 리양 씨 부부도 올 것이라 소리를 듣고 오랜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나 역시 기쁘게 승낙했다.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 어떻게 생일 파티장에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스승님이 우리를 위해 두 번째 만찬을 여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두 행사가 같은 날에 겹치게 되었는데, 묘한 것은 생일 파티는 오후에, 스승님의 만찬은 그 이후 밤에 열린다는 것이었다. 또 여동생의 친구가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교통편도 해결되었다. 정말이지 완벽한 안배였다! 떠나기 전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리양 씨 부부를 스승님께 데리고 가야겠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난 그 부부의 종교적 성

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두뇌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행사가 열리던 당일, 나는 정오 전에 생일 파티에 도착했다. 모두들 정신없이 바쁘게 준비하고 있어서 낯이 익었던 나는 방에 들어가 명상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도착해 시끌벅적해지자 나왔다. 방문을 열고 나온 순간, 문 밖에 서 있는 리양 씨 부부를 발견했다.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리양 씨가 먼저 물었다. “유잉 씨, 명상을 하신다면서요? 제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신의 안배였음을 깨닫고 즉각 대답했다. “오늘 여기 온 건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 내가 스승님을 알게 된 경유를 차근차근 말해 주자, 리양 씨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나눴던 대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중에 리양 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스승님의 만찬에 참석했다. 분위기는 대단했다. 바비큐도 있었고, 스승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다. 스승님은 법문도 하시고 이야기도 들려주시더니, 나중에는 노래까지 함께 부르셨다. 사람들이 입문을 청하자 스승님은 기꺼이 허락하셨다. 리양 씨 부부도 입문에 마음이 쏠리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바로 입문




하도록 재촉하지 않았다. 우선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스승님의 책을 읽어 보라고 권유했다. 다음날 리양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날 밤에 바로 입문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는 말에, 나는 우선 방법법부터 수행해 보라고 제의했다. 그럼에도 그는 전화할 때마다 3개월 동안 기다리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평생을 기다렸는데, 겨우 3

개월을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의 갈망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해준 이야기지만, 리양 씨는 수년 동안 계속 진리를 찾아 왔으며, 다른 수행단체에서도 수행을 해봤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포기하고 매일 신께 참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스승님의 책을 읽었을 때, 비로소 그는 신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제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스승

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의 경우에 너무 잘 들어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신의 세심한 안배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리양 씨 부부와 우리 가족의 20여 년에 걸친 우정, 리양 씨와 내 여동생, 부모님과 관계, 스승님의 두 번째 만찬, 그리고 생일 파티의 시간 등 이 완벽한 시간과 장소, 사람의 안배는 오직 전능한 신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기도의 응답, 바나나 꽃 이야기

미국 뉴저지 센터 장주 (원문 영어)


뉴저지 센터에 단체명상이 있던 어느 날이었다. 점심 시간에 한 장주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동수들과 나눠 먹으면서 재료가 뭔지 맞춰 보라고 했다. 기름에 잘 튀겨낸 듯한 그 맛은 영락없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생선의 맛이였다. 100% 채식이면서 바깥 사람들에게 채식을 추천하기에 적당한 음식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동수들은 치즈다, 발효두부다, 두부다 하며 온갖 재료를 들먹였지만, 정작 재료가 밝혀지자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했다. 그 재료는 일종의 작은 바나나 꽃이었던 것이다!

누구나 즐기는 이 맛있는 채식 음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 식

품을 만든 사람은 한 어울락 동수인데, 그는 원래 대단히 가난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명상 중에 스승님께 성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그러자 화신 스승님이 빔으로 나타나 “시장에 가서 작은 바나나 꽃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시장에 간 동수는 과일 장수들이 바나나를 줄기에서 잘라내고는 꽃봉오리를 줄기와 함께 버린다는 것을 알았다. 버려진 꽃봉오리를 몇 개 주워 와 시범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니 매우 신선하고 특별한 맛이였다. 자신을 얻은 그는 버려진 바나나 꽃을 더 많이 주워다가 맛깔스런

채식 음식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밑천도 들지 않는 장사는 많은 손님들을 끌어 모았고, 그 지역의 대형 식당에서도 특별 주문이 들어왔다. 몇 년 만에 그는 수입이 늘어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동수는 또 바나나 꽃봉오리의 껍질을 맛있는 채식 생선의 재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실제 경험을 동수들에게 들려주며 우리의 전능하신 스승님은 제자들을 영원히 보살피신다고 힘을 북돋아 주곤 한다.

나중에 그는 이 특식을 북미로 수출했다. 그래서 오늘날 아시아 식품을 파는 미국의 슈퍼마켓에서는 ‘바나나 꽃’을 물으면 바로 이 제품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맛의 고향 - 산호세 채식식당

소피 라페어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SM 채식식당은 내가 아는 채식식당 중 가장 뛰어난 채식식당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집으로서 특별한 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복잡한 세속의 스트레스를 안고 왔다가 잠시 쉬는 동안 기력을 재충전하여 활력을 되찾아 돌아가는데, 이것은 결코 일반 식당에선 제공받을 수 없는 가외의 서비스이다.

산호세 채식식당이 인기 있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 하나는 하루 4, 5시간의 명상을 통해 평온한 자장을 발산하며 친절하면서 사려 깊은 종업원들 때문이다. 또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청결한 레스토랑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수술이라도 하듯이 모든 요리사들이 머리를 감싸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요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음식 하나하나에는 스승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이곳은 원래 1960년대에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이 주로 드나들던 PAOLO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음식점이었다. 또 케네디 대통령과 마릴린 몬로가 즐겨 찾던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다. 지하실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매일 단체명상을 한다.

광고를 약간 하긴 했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친구로부터 강력한 추천을 받고 찾아온다. 현지의 단골손님도 확보하고 있지만 몇 시간씩 장거리 운전도 마다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고, 또한 이곳에 있다 보면 손님 대부분이 비입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





는데,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손님들은 채식식당이 이렇게 많은 음식과 다양한 풍미를 갖춘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일반인들이 가정식과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태국, 어울락,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의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맛볼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겠는가! 육식하는 사람들은 채식식당의 다양한 메뉴와 채식고기의 육질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대개 채식주의자들은 삶은 야채와 으깬 두부만 먹는다고 생각할 뿐, 이처럼 다양하게 채식요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채식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어, 채식은 꽤 흥미로운 일이 되었다. 이 외에도 계란이 들어 있지 않은 맛있는 케이크도 제공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더 이상 디저트를 선택하며 입맛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식식당에선 채식 요리법을 무

료로 알려주고 있다.

음식을 포장해서 갈 경우, 식당 측에서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바의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한다. 바에는 늘 스승님의 비디오표 상영하고 있어서 인연 있는 사람들은 종종 비디오에 열중해 집에 가는 것도 잊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다 먹어 버린다. 식당에는 피아노 바와 함께 과즙과 무알콜 칵테일을 제공하는 음료 바가 있어 각자의 구미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이곳 산호세에 채식식당을 여셨을 때, 동수들은 큰 축복을 느꼈다. 이제는 샌프란시스코 만 부근에 모두 10여 곳이 넘는 채식식당이 생겼고, 산호세에만 해도 두부 공장이 몇 군데 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훌륭한 모범은 정말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



채식식당 주소: 520 E Santa Clara St., San Jose, CA 95112, USA

전 화: (408) 292-3798

홈 페이지: <http://sm21.net/VH>



전 세계 채식식당 관련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채식

자오 사형/ 중국 본토



교사인 나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6년 간 완전 채식을 해오고 있지만, 지난 6년 동안 어찌다 걸리는 감기 외에는 거의 아픈 적이 없었다. 2000년 여름 방학 동안 우리 학교 교사들은 사천성의 청두(成都) 지방과 후남성의 장지아지에(張家界)를 다녀오는 여행을 했다. 50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해 장지아지에의 유명한 산들을 연달아 등반했다. 첫 번째 산을 올랐을 때, 일부 팀원들은 절반 가량 오르다 지쳐서 결국 들것이나 차에 실려 내려가야 했다. 반면 나는 선두로 정상에 올랐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해 티엔즈(天子) 산으로 향했다. 산 중턱까지는 버스를 타고 올라간 다음, 그 후 등반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내가 제일 먼저 정상에 올랐다. 내려오는 길에는 나와 다른 교사 3명만 걸어서 내려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다. 내가 제일 먼저 주차장

에 이르자 버스에 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나의 정신력과 체력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다!

장지아지에를 돌고 난 후, 우리는 청두에 도착해 다시 이름난 산들을 등반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산들을 평지처럼 다녔고, 이런 나에게 한 동료는 ‘날아다니는 발’이라고 했다. 여행 내내 등산을 하는 동안 나는 다른 팀원들과는 달리 별도의 등산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발로만 산을 올랐다.

열흘이 넘는 이번 여행 기간 동안 나는 아침에는 수수죽 약간과 찐 빵 두 개를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토마토 두 개, 오이 한두 개, 밥 한 공기를 먹었다. 다른 사람들은 끼니마다 적으면 8가지, 많으면 12가지도 넘게 고기반찬을 먹었지만, 등반할 때는 아무도 날 따라오지 못했다. 학교에 돌아와선 다른 동료들 사이에도 소문이 짝 퍼져서 이제 동료들은 채식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채식주의자가 육


육식하는 사람이 채식하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잘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예일대학의 피셔 교수는 채식하는 사람이 육식하는 사람보다 지구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팔을 들게 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육식하는 사람 15명 중 두 명만이 15분에서 30분까지 팔을 들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채식하는 사람 32명 중 22명이 15분에서 30분까지 팔을 들고 있었으며, 그 중 15명은 30분 이상, 9명은 1시간 이상, 4명은 2시간 이상, 그리고 1명은 3시간 이상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 '즉각 깨닫는 열쇠' 건본책자에서 발췌)

식하는 사람보다 지구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

2001년 5월 1일 노동절에는 10명이 넘는 교사들과 함께 간쑤성 지아위관의 71빙천을 등반했다. 이번에는 완전채식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인 딸도 데리고 갔다. 71빙천은 해발 4,600미터로 올라갈수록 대부분 사람들은 희박한 산소 때문에 고산병을 앓는다. 나에게도 약간 고산병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다른 일행들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종일관 맨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

은 고도까지 등반해서 채식주의자가 일반인에 비해 체력과 지구력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채식이 건강에 유익하며 지구력과 체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채식이 사람의 성격에 가져다 주는 변화와 평화 효과는 인류에게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930. 12. 27. ‘채식 전망대’에 보낸 편지에서) 이제 21세기 채식의 시대를 맞아 채식의 이로움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자. 

사랑과 채식

방편 입문자 프라즈나 데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마카사
(원문 영어)

어렸을 적
우리 집 근처에는
도살장이 있었는데, 새벽
마다 창에 찢려 죽는 돼지의 고
통스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끔찍
한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았지만, 도살장
의 잔혹한 광경은 계속 뇌리에 남아 있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내게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향신료와 조미료로 양념하여 요리하곤 그것을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는다. 잔인하게 살해되는 돼지의 고통과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이 일을 스스로 일깨워 경각심을 가지고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소는 자기가 곧 도살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어

느 도살업자
가 말했다. 그 순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정말 애처롭지
않은가! 비둘기를 죽일 때는 또 어떤가?
비둘기의 목을 조르고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다. 동물도 죽을 때 두려움과 증오, 고통을 다 느끼며, 인간처럼 죽음을 두려워한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살고 싶어하는 천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해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잔인함을 느낀 순간, 나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의 사랑을 키우고 영혼을 고양시키려 하고 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채식식당이 보편화되어서 밖에서도 채식 패스트

푸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채식은 맛도 있고 영양도 풍부해 건강에도 매우 이롭다.

채식을 하면서부터 나는 인내심이 많아지고 쉽게 용서하며 복수심이나 증오심도 없어졌다. 아마도 먹는 음식이 나의 심신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일 것이다. 물론 스승님의 축복에도 감사드린다.

하루는 딸아이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왜 어떤 종파의 불교인들은 채식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 달걀

을 먹는데 엄마는 왜 안 드세요? 엄마는 어떤 종파예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까닭은 중생에 대한 사랑 때문이며, 계란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모든 인류가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며 우리와 함께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자비심으로 만물을 돌보는 날이 어서 오길 희망한다. 🌱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최고의 지휘관

관음사자

예전에 시후 도장에는 목공실이 있었다. 한번은 이곳을 지나면서 한 쌍의 대련(對聯)을 보았다. “산, 숲, 바다, 호수에서 나는 항상 홀로다/ 치고 싸우라. 천하를 얻으리라(山林江湖我一人/ 攻攻打打得江山)”는 글이었다. 그게 어디서 생긴 것인지 묻자, 목공소에서 일하는 사형이 스승님께서 목공소에 특별히 주신 말씀을 나무에 새긴 것이라고 했다.

그 뒤로 수년 동안 그 글을 잊고 지냈다. 그러다 1999년 중동 아프리카 순회 강연 동안 연락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대련이 떠오르면서 마치 나 자신이 낯선 나라를 정복하러 가기 위해 갑옷을 입고 군대를 정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옮겨 다녔다. 스승님의 강연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마다 나는 항

상 힘겨운 전투를 치른 것처럼 느꼈다. 정말 운 좋게도 나는 최고의 지휘관을 모시고 있었다. 나는 항상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종종 성급하게 행동하곤 했다. 한번은 스승님이 내게 당신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으니 채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일을 통해 스승님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때, 적당한 장소, 사람들의 협조 외에도 인연이 무르익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스승님의 일에 집중할 때의 최고의 기쁨은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신께 도움을 청하면, 신은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니 다윗왕이 “신이 우리 편에 계시니, 우리는 항상 승리하리라”고 한 것도 당연하다. 이러한 경험은 스승님의 일을 할 때에만 즐길 수 있는 특전이다! 🌱



적극적인 삶을 살라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6-18. 미국 LA 국제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 테이프 No. 639



여러분이 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복, 재난, 개인적인 문제, 사업, 성공, 실패 등 그 무엇도 여러분 자신보다 의미가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해나가십시오. 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며, 자주 느낍니다. 가끔씩 신이 나를 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괜찮습니다. (대중 박수) 하지만 여러분이 알면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소소한 일들이라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요.

이를테면 최근에 내가 머물고 싶었던 곳을 수리했던 일 같은 것입니다. 그곳이 낡고 더러워서 나는 몇 달 전에 사람들에게 수리해 달라고 부탁하곤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돈도 남겨 두고 갔는데, 그들은 하지 않고 변명만 끝도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더럽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불러 아무나 잡고서 일을 일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몇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말도 안 돼요! 한 달이나 걸릴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일주일, 아니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아 끝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부른 건 이게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사람들을 잡아야 했지요.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가외로 일하고 싶냐고 묻고, 그들이 원하면 일의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정상적으로 퇴근한 후인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기껏해야 11시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주일 만에 서너 칸의 방 수리를 끝냈습니다.

그래도 주방의 한 부분은 페인트칠을 못 했습니다. 타일을 먼저 붙여야 해서 칠을 못 하고 있었는데, 타일공은 낮에 올 수 없다고 하고 나는 그날 밤에 여기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그럼 내가 처리하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이미 일주일도 넘게 계속 일한 데다 여기저기 다니며 이것저것 챙기느라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 일 외에도 페인트칠, 청소 등 온갖 일을 해야 했고, 게다가 몸도 불편해 온몸이 빠근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떠나기로 되어 있던 마지막 날, 나는 떠나기 전에 페인트를 칠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뺏어 버렸습니다. 밤새 잠도 한숨 못 잤으니까요! “아, 세상에. 이제 어떻게 주방을 칠하지? 정말 피곤하다. 사람들에게 큰소리쳐 놓았는데, 하지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웃음)

우주의 유익을 통달한 완전
이 깨달은 성인들로서는 세속과
멀리 떨어져 산속에서 조용히
은거하는 편이 훨씬 자유롭고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
의 수많은 중생들을 돕고 세인
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이 속세에 있기를 택한다. 이를
통해 성인의 입을 통한 가르침
과 모범적인 행동을 조금이나마
접할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는
수행자로서 세속에서 어떻게 우
주의 대지혜를 운용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된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일이 있어서 겨우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내 옆을 지나치던 사람이 우물쭈물하더니 말을 걸어 왔어요. “페인트공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대중 박수) 그래서 내가 언제 시간이 나냐고 묻자, 그가 말했어요. “지금요!” (대중 웃음) “좋아요. 그럼, 이리 오세요” 하고는 그에게 공구를 보여주자 그는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 전에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중 박수)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회사들은 바쁘든가, 공공로게도 휴일이어서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 없지요. 사람을 구할 때는 아무 때나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모든 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방범시설, 카펫, 타일 등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일했지요.


그 전에 사람들은 그곳을 정리하려면 수개월은 걸린다고 겁을 줬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놓아야 하지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며칠 만에 일을 끝낼 수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내가 떠나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물으면, 그들은 해보겠다고 하고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모두들 와서 일했고, 일은 거의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마무리하고 손보는 정도였어요. 난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은 정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신은 알다시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면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별로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응석을 부리기도 하지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다만 그때 우리는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그 힘까지도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 대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우리에게 아무런 배울 기회가 남지 않게 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대신 일해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 많은 재미있는 것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나를 위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만일 시간이 난다면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많아지고 생활도 재미있어지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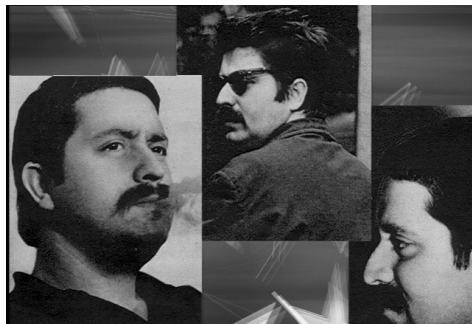
이전에도 못 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내 비행기 좌석도 예약하지 못했고, 어느 항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탑승구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난 아주 많은 것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운전도 모르고 돈을 쓰는 법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게 재미있다는 걸 압니다! (대중 웃음)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필요할 때 구하는 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아주 만족스럽지요. 나는 소위 ‘큰일’ 들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살면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일들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삶과 현실을 더 가까이 접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느끼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바쁘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숨도 돌릴 틈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웃는 얼굴로 앉아 있다고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많은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앉아 있거나 불평한다고 해서 나에게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흘러 보내는 겁니다. 상황은 또 지나면 그만이니까요. 우리는 대개 그것이 환상임을 명백히 꿰뚫어 보면서도 그냥 같이 어울려 주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또 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물을 보다 명확히 보고, 환상을 더욱 분명히 통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너무 똑똑히 봐서 나를 떠나 버리지는 마십시오! 너무 뚜렷이 보이면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때로 우리를 약간 어두운 곳, 구석진 곳에 두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본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없어지고 고향으로만 가고 싶을 겁니다. 온갖 수단을 부려 해야 할 일들을 한번에 끝내고, 모든 일들을 서둘러 마무리짓고는 이 잔인한 세계에 ‘안녕’ 을 고하겠지요! 

세계적인 독일 영화감독 헬무트 니츠케 씨와의 인터뷰

(원문 독일어)



들어가며:

한 편의 걸출한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나리오뿐 아니라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배우, 훌륭한 소품과 배경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화에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감독이 있어야만 한다. 헬무트 니츠케는 바로 그런 감독이다. 다재다능한 예술가인 니츠케는 영화감독일 뿐 아니라 오페라 각본도 쓴다. 그는 1972년 겨우 35세의 나이로 최우수 영화감독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Lexikon der DDR-Stars로부터 많은 극찬을

받았다. 또한 독일에선 여러 차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6년 니츠케는 마침내 그가 평생 동안 추구해 왔던 진리의 길을 찾아냈으며, 이제 예술과 영성이 어우러진 삶을 살고 있다. 다음은 헬무트 니츠케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 문 : 집안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니츠케: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의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데,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늘 이르셨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물질 중심의 '유물론'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영성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예술가였는데, 나는 근심걱정 없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후 이 모든 주변 여건이 바뀌었고, 우리의 행복한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나의 직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겪었던 고통스런 시간들은 전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던 거죠.

질 문 : 당신의 아버지는 화가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영화감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습니까?

니츠케: 영화에 매료된 것은 그것이 이야기와 그림을 함께 다루는 예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영화는 움직이는 그림이며, 또한 소리와 이미지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덧없는 것들 속

에서 영원하고 불변한 그 무엇을 찾을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이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질 문 :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요?

니츠케: 나는 20대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관객들이 주위 환경들을 통해 그들 자신을 발견하고 신이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랬습니다. 도마뱀, 사람, 개 등 그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자비심을 느끼고, 신은 크고 작은 모든 생명들을 보살핀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영화로 전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요.

질 문 : 칭하이 무상사의 비디오 강연을 처음 보셨을 때 받은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니츠케: 스승님의 눈을 통해 발견한 사랑은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스승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받은 느낌은, “세상에, 이분은 살아 있는 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분께 인도되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진리를 추구해 왔고, 이런 동경이 예술가로서 받은 진정한 축복이자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을 만나고 나니 마치 신성한 부름을 통해 진리와 스승님께 인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질 문 : 이제 칭하이 스승님을 따르면서 다른 주제로 영화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니츠케: 초기 작품들과는 다른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수행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것말입니다. 그리고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관한 영화도 만들고 싶습니다.

질 문 : 칭하이 스승님의 눈에서 사랑과 자비를 느껴 그녀의 책을 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신의 영성 탐구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니츠케: 영성 탐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면서 스승님이 이 길에 같이 동행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살면서 살아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이 행복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요. 스승님의 말씀 방식과 가르침의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스승님이 아주 쉬운 단어를 쓰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는 스승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한 듣는 이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 전달됩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읽어 본면 내가 방금 한 말이 정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평생 동안 찾아왔던



그것이지요! 정말 꿈처럼 놀랍기만 합니다. 나의 체험들은 너무나 놀랍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영화로 옮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지만 실제 일어났으니 꿈이 아니지요.

나는 이전부터 살아 있는 스승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동방 그리고 인도에서 살아 있는 스승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지만, 나 자신이 그런 살아 있는 스승을 만나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처음 스승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미리 안배된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읽었을 때 바로 이것이 내가 평생 찾아왔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중 일부는 예전에 알던 것이었지만 일부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을 만나 후, 나의 영적인 행로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승님이 내게 주신 건 직접적인 깨달음과 직접적인 체험들이었으며, 이걸 그 어떤 언어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후기 : 니츠케 감독의 아내인 하이케마리 벤자이(Heikemarie Wenzel)는 독일에서 대단히 유명한 여배우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영적인 길을 추구해 왔습니다. 또 많은 불교 서적들도 읽었지요. 하지만 스승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즉시 관음법문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런 결정이었어요. 노년을 맞으며 죽음의 문제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생각해야 했지만, 이제 스승님의 보호로 모든 일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니츠케 부부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아끼며 신과 사랑에 이르는 길을 걷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 인터뷰는 ‘예술과 영성’ 제46편에 방영되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http://137.hichannel.com.tw> (독일어)



지상에 천국을 창조하기

로즈마리 낙테갈 사저/ 호주 멜버른 (원문 영어)

나 자신과 내 집 환경이 깨끗해지면
순수하고 산뜻한 느낌이 들어요
내 주위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만족스럽고 편안하지요
어질러진 구석을 치워 공간이 생기면
난 그 안에서 발끝도 가볍게 춤추고 싶어요

내 머리칼과 옷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정하면
보무도 당당하게 세상을 누빉니다
사랑과 자비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건
내 내면의 느낌과 너무 잘 맞아요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도
그들 안에 나와 같은 신성이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캔버스,
천국의 걸작품이 그려지길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지혜의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면,
빛과 공간, 색채의 재료로
우리의 천상의 품성을 투영시켜
금방이라도 지상에 천국을 그려내겠지요
이 시대 최고의 화가인
칭하이 스승님처럼요!



나만의 특별한 공간

니콜라스 사형 (9세)/ 뉴질랜드 (원문 영어)

내 방은 나만의 특별한 공간
곳곳에
마술과도 같은 존재들이 숨어 있어요
수많은 상상 속의 친구와
가족들이 날마다 찾아와
온갖 위안들로
내 얼굴을 감싼답니다
모든 불들이 사라지면
이젠 나를 위한 빛만이 존재하지요
숨바꼭질을 해도 찾을 수 없는 곳
내 방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곳이죠!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

724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

2001. 6. 12-16.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725 겸손한 삶의 자세

2001. 12. 22-23.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기념 선행사

726 헌신적인 마음

2001. 12. 22-23.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기념 선행사

728 사랑 어린 생각의 가피력

2001. 12. 26.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기념 선행사

<중국어>

727 나눔의 공부

2001. 12. 25.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기념 선행사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CD

<중국어> MP3 -8

포모사 핑둥 산티먼 국제선칠

1990. 4. 1-8. (상)

1-2. 깨달은 스승의 중요성

3. 제자들에게 주신 스승님의 수기(受記)

4-5. 스승을 따르면 윤회하지 않는다

6-7. 다른 이를 제도하는 법을 알려면

완전히 깨달은 스승이 있어야 한다

포모사 핑둥 산티먼 국제선칠

1992. 12. 19-25. (하)

8-10. 수행 진보에 대한 해설

11-13. 수행 체험담 발표

14-16. 스승님과 시자들의 산중생활 이야기

11-18. 자신감과 자기비하

19-21. 권력의 함정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 Fax: (886) 2-87870873

E-mail :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 계좌번호 :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스리랑카 콜롬보 소식

장애인에게 사랑과 진리를 나누다

(원문 영어)

2002년 2월 8일 스리랑카 동수들은 장애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 거주하는 남녀 성인과 어린이 147명 중 몇 명만이 불구의 수족을 힘겹게 움직여 수제품을 만들 수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는 자기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지역민들의 사랑 어린 도움으로 동수들은 다소 불운한 이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나눠 주었다. 선물을 받은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얼굴에 함박웃음을 피웠다.

비입문자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 또 우리는 생필품과 함께 건본책자도 나눠 주었는데, 받아든 사람들은 우리가 채식을 하고 엄격하게 5계를 지킨다는 얘기에 깊은 인상과 놀라움을 느꼈다.

우리는 이들의 불행에 큰 슬픔을 느꼈지만, 또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펼쳐야겠다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신을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활동을 하는 동안 동수들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



미국 오하이오 소식

스승님의 축복으로 부활절의 기쁨을 선물받은 노숙자들

(원문 영어)

이 세상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있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봄의 도래를 통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다. 올해 오하이오 센터 동수들은 부활절을 맞아 노숙자들에게 스승님의 축복

을 전하기로 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어서 토요일 단체명상을 마친 후 서둘러

준비해야 했다. 다행히 스승님의 자비로운 안배로 필요한 물품은 모두 구할 수 있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모든 일이 지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과일을 상자로 구매해 개별 포장을 하고 음식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중국식 스프링롤 대신 채식고기로 만들어진 슬로피 조(Sloppy Joe) 샌드위치를 나눠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만에 200개의 과일 바구니와 300개의 샌드위치, 야채 샐러드, 감자 칩, 청량 음료 등이 준비되었다.

부활절에 우리는 커다란 스승님 범상과 준비한 과일 바구니, 음식 등을 가지고 노숙자 수용소에 도착했다. 노숙자들과 함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200여 명에게 스승님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인지 묻고, 견본책자를 요구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읽었다. 음식은 나눠 주는 즉시동이 났다. 사람들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채식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감탄했다.

노숙자들은 우리의 선물을 받고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종종 송고한 영혼을 보여 주기도 했는데, 한 노숙자는 하나 남은 과일 바구니를 마저 주려고 하자,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에게 주라며 극구 사양했다. 그 말을 듣고 동수들은 그 자신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비심을 보이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인의 품성, 그 자체였다!

모든 오키오 동수들은 2002년 부활절 휴일 동안 노숙자들에게 스승



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얻은 데 한없는 기쁨을 느끼는 한편, 이런 활동을 통해 스승님이 내면의 인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배려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있어 이번 부활절은 참으로 의미 깊은 하루였다. 🌿



포모사 타오웬 소식

소년원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축제

2002년 3월 14일, 20여 명에 달하는 포모사 동수들이 타오웬 소년원의 교사와 소년원생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영성 고양 세미나를 개최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먼저 동수들은 현재를 소중히 하고 희망 찬 미래를 창조하라며 용기를 심어 주었다. “역경 속에서 성공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다”, “실

수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동수들의 진실한 격려에 청중들은 마음을 열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어서 한 사제의 주도로 모두들 즐거운 노래시간을 가지면서 따

뜻하고 축복이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스승님의 비디오인 ‘사랑의 길을 걷자’ 상영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마음속에는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과 자비의 행적으로 인한 영성의 씨앗이 심어졌다. 마지막으로 관음사자가 방편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신의 복음이 전해져 이제 밝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 포모사의 미래의 주역들이 수행과 해탈의 길을 걷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



관음사자가 타오원 소년원생들에게 방편법을 전수하고 있다.

표1 : 2002년 1월부터 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활동 지출내역

(단위 : 대만 달러 NT)

지 역	날 짜	활 동 내 역	금 액	부 록
평후	2002. 1. 10.	평후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강연과 명상법 지도	0	
타이난	2002. 1. 27.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 타이난 골든 코스트 청소작업 (자원봉사)	0	
까오슝	2002. 1. 31.	까오슝 소년 감호소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강연 및 문예 공연	5,000	A
타이난	2002. 1. 31.	타이난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강연 및 문예 공연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1. 31.	타이난 밍더 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강연 및 문예 공연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2. 4.	타이난 소년 감호소 재소자들에게 영성 강연 및 문예 공연, 구정 선물	3,000	B
타이베이	2002. 2. 5.	무주택, 독거 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울 스웨터 384벌 기증, 타이베이 시 사회복지국 완화복지센터를 통해 전달 (동수 기부)	0	C
창화	2002. 2. 7.	창화 소년교정원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강연 및 구정 선물	9,000	D
타이난	2002. 2. 9.	타이난 현과 타이난 시의 저소득 가정에 구정 선물	65,000	E
핑둥	2002. 2. 9.	핑둥 완루안 향 신즈촌 저소득 가정에 구정 선물	27,000	F
핑둥	2002. 2. 24.	핑둥 현 완루안 향 신즈촌에 환경보호활동으로 신광로 청소작업 (동수 지원)	0	
화롄	2002. 2. 27.	화롄지법 검찰서 보호관찰소를 통해 저소득 가석방자에게 스웨터 100벌 기증 (동수 기부)	0	G
타이난	2002. 2. 27.	타이난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강연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까오슝	2002. 2. 27.	까오슝 소년 감호소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강연 및 문예공연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2. 27.	타이난 밍더 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강연 및 문예공연,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0	
총 액			NT\$ 109,000	

표2 : 2002년 1월부터 2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 가정 돕기 지출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지 역	2002년 1월		2002년 2월		부 록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8	21,000	8	21,000	2
타오웬	1	2,000	1	2,000	3
신주	2	6,000	2	6,000	4
타이쑹	8	26,000	8	26,000	5
난도우	6	23,000	6	23,000	6
지아이	3	8,000	3	8,000	7
타이난	1	4,000	1	4,000	8
까오핑	4	12,000	4	12,000	9
타이푹	4	10,000	4	10,000	10
소 계	38	NT\$114,000	38	NT\$114,000	
총 액				NT\$228,000	

<p>1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3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5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6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2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4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9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10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p>中華民國禪定學會</p> <p>1. 劉金林 2002.01.10 500,000NT\$</p> <p>2. 劉金林 2002.02.10 500,000NT\$</p>

표 1, 표 2에서 보이듯이 2002년 1월과 2월 포모사 내 각종 자선활동 지출액은 총 337,000NT\$(미화 약 9,628.57달러)에 달한다.



수신: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2002년 2월 11일

이 어려운 시기에 귀 협회가 베풀어주신 지원과 관심,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동포들이 우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매일 부딪히는 도전을 보다 쉽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신이 미국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뉴욕 소방서 13대 대장 월터 G. 하이니스 가족 일동

주: 지면 관계로 9. 11 재난으로 인해 미국 뉴욕 소방서 희생자 가족의 감사편지와 카드를 전부 기재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이들의 편지와 메시지에 대한 목록입니다.

내 용	별첨
뉴욕 소방서의 감사 편지	TK1
프랭크 보노모 가족의 감사 편지	TK2
존 진레이 가족의 감사 편지	TK3
마이클 T. 루소 가족의 감사 편지	TK4
폴 R. 마티니 가족의 감사 편지	TK5
로버트 J. 포티 가족의 감사 편지	TK6
드 네오 가족의 감사 편지	TK7
제임스 M. 아마토 가족의 감사 편지	TK8
존 A. 크리치 가족의 감사 편지	TK9
존 오거스트 산토의 감사 편지	TK10
존 호만 가족의 감사 편지와 동봉한 카드, 가족 사진	TK11
토마스 T. 하스켈 가족의 감사 카드	TK12
레비틴 가족의 감사 편지	TK13
멀도우니 가족의 감사 편지	TK14
토마스 J. 헤젤 가족의 감사 편지와 사진	TK15
빈센트 G. 할로란 가족의 감사 편지와 사진	TK16
월터 G. 하이니스 가족의 감사 편지	TK17
윌리엄 J. 맥거번 가족의 감사 편지	TK18

FDNY
9 MetroTech Center
Brooklyn, NY 11201

TK1

1902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September 11, 2001

The 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wishes to extend to you our heartfelt appreciation for your thoughts, prayers and support during this time. We have lost many wonderful, talented and courageous people, but the outpouring of support and assistance from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has been a source of comfort, strength and inspiration.

TK2

*Thank you for your
Support, Love, Prayers and Friendship*

*The Family of Frank J. Bonomo
Thank you for your support during
this trying time. Your donation
to our family is greatly appreciated.
My husband was a 17 year member
of Engine 230 in Bedford-Stuy, Brooklyn
a dedicated husband & father. →*

TK3

Thank You

*Your thoughtfulness
during this difficult time
was greatly appreciated.*

Taylor and Connor Gintley

kind remembrance of John

TK3


Thank You

thoughtfulness
difficult time
appreciated.

and Connor Ginley

in remembrance of John

Celebrating the life of
LIEUTENANT JOHN E. GINLEY



Monday, October 22, 2001
St. Stephen, The First Martyr - Newark, New York

Perhaps you sent a lovely card
or sat quietly in a chair.

Perhaps you sent a funeral spray
if so, we saw it there.

Perhaps you spoke the kindest words,
as any friend could say.


Perhaps you were not there at all,
just thought of us that day.

Whatever you did to console our hearts
we thank you so much whatever the part.

TK4

The family of
Lt. Michael J. Russo

TK5



The family of
Lt. Paul Richard Martini
wishes to express their deep appreciation
and sincere thanks for all acts
of kindness shown to them during
their time of sorrow.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glish Studies
December 1997 \$12.00

January 9, 2002

Volume 25, Number 1

ISSN 0022-2267

Copyright © 2002 by the IAE

Printed in the USA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Library of Congress

Card No. 80-100000

TK7 *It means a lot
when someone shows they care
in such a thoughtful way.
Your kindness will
always be remembered
The De Med family*

TK8 *The family of
James M. Amato
acknowledges with grateful
appreciation your kind expression
of sympathy*

*Thank you sincerely
for sharing our sorrow.
Your thoughtfulness
is appreciated and
will always be
remembered.* **TK9**
**The Family of
John A. Crisci**

TK10 
*The family of
John August Santore, FDNY
acknowledges with
grateful appreciation
your kind and thoughtful
expression of sympathy.*


NINA BARNES LEVITIN
P.O. Box 397
Wainwright, New York 11975

Saturday, January 19, 2002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1340 Orvington Ave.
Brooklyn, New York 11219

Re: ESTATE OF FIREFIGHTER DURELL "BRONCO" PEARSON

To Whom It May Concern:

"THINK NOT OF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Once in a while, in a great while, people do things for beyond ones fondest expectations.
The gift you have given reaches far beyond what any financial philanthropy would
represent.

What is it gifted here is an expression representing conscious and love that exists, deep
down within this country's fiber. It shows that beyond politicking, national origin,
religion, race or creed that the collective conscious that is embodied within the mosaic of
Americans together with their ideals stand far above any other concept that exists in this
world.


Thinking you is but a simple understanding of appreciation however, you should know
that your kindness will forever live in my heart.

At this moment in time I am trying to heal however, with the pain in my heart I will never
forget, and at the same time I will never forgive those who brought injustice to all that is
precious and sacred...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With the greatest appreciation and love,

Nina Barnes Levitin
Nina Barnes Levitin
SOLE SURVIVING PATERNAL RELATIVE

TK13

TK11 
*Thank you so much
for thinking of me and
my family in these
trying times.*
Jewell

*the family of Firefighter Jonathan
Hohmann wish to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expression of kindness to us.*
*Maybe you sent us a card, poem, gift
or an item memorializing our Hero,
Husband & Father.*
*It has touched us deeply and we are
grateful.*
Rosemarie, Matthew & Gregory
Hohmann

TK12
*Your kind expression of sympathy
was deeply appreciated,
and is gratefully acknowledged
by the family of
Thomas T. Haskell, Jr.*

MULDOWNEY FAMILY

January 18, 2002

To: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On behalf of myself, my children and the entire Muldowney family.
I would like to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your
sympathy, prayers, and extreme generosity.

Your kindness will never be forgotten. I wish I had the words to
express to you how grateful and thankful we are to such a
wonderful nation, a most loving family and the best friends we
could ever imagine.

GOD BLESS YOU ALL AND GOD BLESS AMERICA!!!!

Sincerely,
Connie, John & Katie
Connie, John and Katie Muldowney
The Family of Richard T. Muldowney, Jr.
FDNY - Ladder 7

TK14

TK15 
*So some Very Special People,
So sorry for this belated "Thank You"
but my daughter, Amanda (age 2 1/2)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the
Days R Us Gift Certificate you had
donated to us this Christmas!*
*It has been very touching to see
how much everyone has cared to help
make the holidays an extra special one
for us! Thanks for thinking of us.*
*Very fondly yours,
Susan Amanda Hessel*
Wife of Firefighter Thomas R. Hessel, Ladder 13

More words cannot express our feelings over the last few months. The loss of a very special
person who was greatly loved not only by his family but many others is indescribable.


Please accept this note as a sign of our appreciation for your thoughts and prayers in the earliest
stages of this tragedy. We had so much hope and faith that the power of prayer from so many
family members, friends, and caring people around the world would answer our prayers for
Vincent's safe return home. We were answered but not in the way we would have
hoped. He is home now and watching over all of us.

We would also like to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thoughts and prayers as well as the
generosity you have shown the boys and I after the realization that we would be alone to carry
on. We have to believe that he was so special that he completed his work here on earth early and
was only able to stay with us a short while.

We will always be grateful that he chose us to be his family and feel that the brief time he was
with us was better than never at all.

Let us pray for brighter days as we walk into the future.

*Maria, George, Aidan,
Declan, Jake, Kieran*

TK16 

TK17
February 11, 2002

To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Thank you for your support, generosity and thoughtfulness during this difficult
time. Knowing that so many in our country have us close in thought and prayer
has made it easier for us to get through the challenges that we face each day.
We know we are not alone.

May you be blessed each day and may God bless America!

Sincerely,
Veronica A. Hynes
The Family of NYPD Capt. Walter G. Hynes (Ladder 13)

TK18
*Your thoughtfulness
is greatly
appreciated.
Sincerely,
The Family of
William J. McGovern
God Bless You*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9-865026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mchinghai@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us@meloo.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us@meloo.com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br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formax@ifxbrasil.com.br
★ 칠레		
라 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center@sinfon.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Ms. Maritza E.R. de Leone	507-236-7495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센터	595-21-662895 paraguay_asuncion_10@yahoo.com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54-232682 cusco 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p@bonus.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오타와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Armand Laplante	613-740-1017 er574@freenet.carleton.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oceanoflove@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 미국

애키조나 :	센터 Mr. & Mrs. Kenny Ngo kennyingoaz@hotmail.com	1-623-581-0725 1-602-264-3480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bobj@arkansas.net	1-501-253-8287	미시간 :	센터	HughMDCenter@yahoo.com 1-301-972-5654 bce77@bigplanet.com 1-248-370-2924 smmcenter@yahoo.com 1-612-722-7328 quach001@msn.com
캘리포니아 :			미네소타 :	Ms. Quach Ngoc	
*로스앤젤레스	센터 Mr. & Mrs. Tsung-Liang Lin t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gmartin0999@hotmail.com	1-909-674-7814 1-626-914-4127 1-626-284-9994 1-310-836-2740	미주리 :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Saccenter.ca@usa.com	1-916-682-9540	*제퍼슨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샌디에이고	센터 Mr. & Mrs. Tran Van Luu KHOALUONG@aol.com	1-619-280-7982 1-619-475-9891	*롤라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lps.org
*샌프란시스코	센터 Mr. & Mrs. Khoa Dang Luong Mr. & Mrs. Dan Hoang sfcenter@hotmail.com	1-415-753-2922 1-415-333-9119	네브라카 :	Ms. Helen Wong	1-702-242-5688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James_Le@adapte.com	1-650-988-6500 1-408-463-0297 1-510-276-4631 1-408-253-8516 1-408-262-8233	네바다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1-856-667-3829 albert_nghiem@hotmail.com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1-505-822-1560 anawarskas@hotmail.com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torahi@ureach.com	1-303-986-1248	뉴저지 :	Mr. & Mrs. Nghiem The Trung Mr. Chang Sheng Chou	
플로리다 :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822-1560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Ms. Trina L. Stokes tls77@aol.com	1-941-458-2639 1-239-433-9369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ekalbekim@yahoo.com	1-407-333-0178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georgiacenter@bellsouth.net Mr. James Collins Ms. Kim Dung Thi Nguyen	1-770-936-9926 1-770-934-2098 1-404-292-7952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Mr. & Mrs. Vu Van Phuong	1-704-535-3789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1-937-746-3786 wisdmeye@aol.co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하와이 :	센터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DorothySakata@aol.com	1-808-735-9180	오하이오 :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caominhlamtran@hotmail.com Mr. & Mrs. Sang-Yoon Lee ilovesuma@yahoo.com	1-773-506-8853 1-773-261-4033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Duchanh@aol.com	1-317-293-5303	오리건 :	Ms. Vera Looijenga Mr. & Mrs. Minh Tran	1-503-234-1416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FNGUYEN@MAIL.STATE.KY.US	1-502-695-7257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Mrs. Ella Flowers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1-215-879-6852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jlfontenot@hotmail.com	1-504-483-3234	텍사스 :		
메사추세츠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1-972-395-0225 mechat@email.msn.com 1-972-517-5807 water96@yahoo.com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1-281-893-8300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1-281-251-8812 DNgyuen376@aol.com
*보스턴	센터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Mr. & Mrs. Huan-Chung Li	1-978-436-9982 1-508-791-7316 1-978-957-7021	*달라스	센터	1-281-251-3199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휴스턴	센터 Ms. Carolyn Adamson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Mr. & Mrs. Robert Yuan	1-281-893-8300 1-713-6652659 1-281-251-8812 1-281-251-3199

*샌 안토니오	Mr. Khoi Kim Le	robert.yuan@hp.com 1-210-558-6088
버지니아 :	센터 Mr. & Mrs. Hua Phi Anh	lethong@hotmail.com 1-703-941-0067 1-703-978-6791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anhhlh@hotmail.com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임상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shantiragyi@hotmail.com

아시아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armenhovhannisyan@hotmail.com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e@ms33.hinet.net
	Mr. & Mrs. Loh, Shih-Hung	886-2-23756784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 인도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881
		yadadi@zahav.net.il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자카르타	Mr. Agus Wibawa	62-81-855-8001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1@uei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수라바야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1@sby.dnet.net.id
마겔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요야카르타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ath.biglobe.ne.jp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genesis@mb.infobears.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l@kornet.net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유태인	02-795-3927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이원석	051-894-6645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신현창	0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2-394-6552
		enlightenment@hanmi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21-3043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캘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gym99@hotmail.com

★ 몽골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 kathmandu@hotmail.com

포카라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센터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977-61-28455
Mr. Bishnu Neupane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pokharacenter@hotmail.com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 스리랑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70927 jean@sol.lk
★ 태국	방콕	662-674-2694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치앙마이	Mr. Wu Peir Yuan	66-1-8248294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217080
하야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콘캔	센터	66-43-261878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148 hugo_berton@hotmail.com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 핀란드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jippii.fi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surfeu.fi
★ 프랑스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그리스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thuong5@cs.com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heaven.bud@mail.matav.hu
	Mr. Lux Tamas	36-309-611994
	Ms. Dora Seres	36-1379-1924
지울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unison.ie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91-4874953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로드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포르투갈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21-920-4118 lisbon_center@hotmail.com
	Mrs. Deborah e dos Santos	351-0-96-618-7249 quanyindaugther@yahoo.co.uk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Ms. Lidia Kong
	Mr. Wang Ya-King	34-91-7756670 34-95-2351521
말라가	Ms. X.C. Wang & Ms. X.C. Yang	34-96-3336208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72640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hang.nguyen@spray.se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widlund@hem.utfors.s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스톡홀름	Mr. Mats Gigard	wu.john@telia.com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 스위스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rs. Rosemary Nagtegaal	61-3-9307-6982
★ 영국				Mr. Pham Van Bon	61-3-9470-4573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4989 l.wellers@ntlworld.com	퍼스	Mr. Alan Khor	61-3-9857-4239
런던	센터	44-208-3742743		센터	61-8-9242-1189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pnl@matters19.freemove.co.uk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 스코틀랜드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btinternet.com	★ 뉴질랜드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오클랜드	Mr.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 오세아니아 ***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extra.co.nz
★ 호주				Mrs. Chang-Wu Wong	649-534-0986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hotmai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647-858-3355 hamnzcont@yahoo.co.nz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64-3-5391313 shale@ihug.co.nz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넬슨	Ms. Sharlene Lee	647-544-5268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타우랑가	Ms. Joy Daniels	
마이런 베이/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unitel.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상주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숲과 무지개 정원을 미화하다

시후 도장을 공개하지 않던 3

월 마지막 일요일, 많은 동수들이 센터에 와서 죽림 명상지역과 무지개 정원을 청소하고 정리했다.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동수들은 우선 대명상홀에서 명상하며 이날 작업을 위한 기운을 충전했다. 명상으로 얼굴이 환해진 동수들은 그 후 두 조로 나뉘어 각각 죽림과 무지개 정원 일에 착수했다.

죽림 명상지역에서는 우선 어린 대나무들이 자라나고 숲에 햇빛이 들 수 있도록 죽은 대나무를 베어냈다. 베어낸 대나무는 길가로 내놓았다가 다시 짧게 잘라 트럭에 실어 운반했다. 다음 과제는 대나무를 이식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선 먼저 밑부분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낸 다음 뿌리째 뽑아다가 미리 생각해 둔 장소로 옮겨 심어야 했다. 이 재배치가 끝나자 죽림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햇볕이 잘 들어 환기도 잘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댓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땅에까지도 반사되자 죽림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무지개 정원

수년 동안 장주들의 사랑 어린 보살핌으로 무지개 정원의 반얀 나무 8그루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러나 뿌리 역시 너무 무성하게 번져서 화장실 배수로 막을 지경이 되었다. 이 때문에 장주들은 반얀 나무들에게 새로운 집을 찾아주기로 했는데, 새로운 장소는 무지개 정원 맞은편에 있는 센터와 맞닿아 있는 고속철로 부근이었다. 이렇게 해서 배수로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고속철로 공사로 인해 날아오는 먼지와 모래도 무성한 반얀 나무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동수들은 이 외에도 장주들이 특별히 제작한 쌀겨로 만든 유기비료를 과실수에 뿌려 주었다. 동수들의 사랑의 손길이 닿았으니, 이제 가까운 미래에 과일이 풍성하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어>

· 즉각 깨닫는 열쇠 3권



即刻開悟の鍵 3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スプリムマスター チンハイ)

マスターが話す 物語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スプリムマスター チンハイ)

<일본어>

·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최신 출판물



SUPREME MASTER CHING HAI

КЛЮЧЪТ КЪМ
НЕЗАБАВНОТО
ПРОСВЕТАНИЕ

ВЪПРОСИ И ОТГОВОРИ 1

<불가리아어>

·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1권
·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
가기 위해 왔습니다

Высочайший Учитель Чинг Хай



КЛЮЧ 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У
ПРОСВЕЩЕНИЮ

ВОПРОСЫ И ОТВЕТЫ

Книга 1

<러시아어>

·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1권

<체코어>

·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1권



NEJVYŠŠÍ DUCHOVNÍ UČITELKA ČCHING-CHAI
(ČCHING-CHAI WU-SANG-SŮ)

KLÍČ
K OKAMŽITÉMU OSVÍCENÍ

Otázky a Odpovědi 1

SONO GIUNTA
PER CONDURVI A CASA



Biblioteca di libri e insegnamenti spirituali tratti dai discorsi
della Suprema Maestra Ching Hai
Edizioni SMCH

АЗ ДОЙДОХ,
ЗА ДА ВИ ОТВЕДА
У ДОМА



Сборник от цитати и духовни учения на
Supreme Master Ching Hai

AZÉRT JÖTTEM,
HOGY HAZAVIGYELEK



Ching Hai Legfelsőbb Mester
spirituális tanításainak és beszédeinek
válogatott gyűjteménye

<이탈리아어> <불가리아어> <헝가리어>

·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 감로법어



Maître Suprême
Ching Hai



La clé de
l'illumination
immédiate
1

ALTEA 2000



Najwyższa Mistyczna Ciepła Hai
Ching Hai Wu Shang Shih

Klucz do natychmiastowego
oświecenia
tom 2

<폴란드어>

· 즉각 깨닫는 열쇠 2권

<불어>

· 즉각 깨닫는 열쇠 1권

<어울락어>

· 즉각 깨닫는 열쇠 14권



Bí Quyết
Túc Khắc Khai Ngộ — Hiện Đời Giải Thoát
Khải Thị 14